

청소년의 정서문제 및 휴대전화의존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연구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박인아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Emotional Problems, Smart phone Dependency and School Life Adjustment -from a perspective of choice theory-

In-A Park

Division of Social Welfare, Honam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Glasser(1998)의 선택이론 관점에서 청소년의 정서문제와 휴대전화의존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의 관계구조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실천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자료 중 2차년도 자료가 활용되었다. 분석대상은 중학생 2,075명으로 남학생 1,015명(48.9%), 여학생 1,060명(51.1%)이었고, 가설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공동체의식이었고, 선택이론을 근거로 청소년의 정서문제가 학교생활적응과 휴대전화의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은 정서문제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향상을 위해 공동체의식 함양, 휴대전화의존과 정서문제를 완화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교사 증원과 비정규직의 개선 등을 논의하였다.

• 주제어 : 정서문제, 휴대전화의존, 학교생활적응, 공동체 의식, 선택이론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verify the relational structure of adolescent's emotional problems, smart phone dependency and school life adjustment from a perspective of Glasser (1998)'s choice theor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tilized the second year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Data.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affecting adolescent's school life adjustment was found to be the sense of community, and adolescent's emotional problems were found to have a effect upon school life adjustment and smart phone dependency based on the choice theory. This study discussed issues of cultivating the sense of community to improve adolescent's school life adjustment, and developing counseling program and reinforcing the counseling personnel with improvement of contingent employment to alleviate smart phone dependency and emotional problems.

• Key Words : Emotional problems, Smart phone dependency, School life adjustment, Community sense, Choice theory

*Corresponding Author : 박인아(iapark@honam.ac.kr)

Received September 9, 2016
Accepted October 20, 2016

Revised October 7, 2016
Published October 31, 2016

1. 서론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므로 청소년의 심리, 정서, 행동발달에 학교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학교는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발달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을 학습하여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기관이다[1]. 반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 비행, 낮은 학업성취와 학업중단, 따돌림 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성인기의 직업적, 경제적 수준을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2]. 또한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은 가출, 우울과 자살, 약물중독 등의 빈도도 높다[1]. 이와 같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심리, 사회적 건강의 반영이므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실천적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Glasser(1998)는 선택이론을 통해 인간은 누구나 기본 욕구를 가지며, 때때로 우울, 공격성, 위축 등을 포함하여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찾는 능동적인 존재라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로 인해 중독이나 부적응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즉, 우울, 주의집중, 공격성 등의 정서문제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의 반영이며, 현대전화의존과 학교생활부적응은 이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택이론 관점에서 청소년의 정서문제와 현대전화의존, 학교생활적응의 관계구조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이론적 근거와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선택이론

선택이론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특정한 방법으로 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인간은 기본욕구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한다고 전제한다. 즉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적이 있으며,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행동한다는 것은 인간의 다섯 가지 기본욕구 즉, 생존, 사랑, 힘, 즐거움, 자유 중 하나 이상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3, 4].

중독과 관련하여 Glasser(1976)는 힘이 강한 사람은 긍정적 중독을 선택함으로써 개인의 삶에 오히려 활력을 얻고, 힘이 약한 사람은 부정적 중독을 선택함으로써 본인의 삶을 파괴하게 된다는 것이다. 긍정적 중독은 이것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어지며 본인들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하여진다. 사람들은 기본욕구 중 하나 이상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을 선택하는데, 항상 행복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며, 불행인 줄 알면서도 더 나은 선택을 할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고 불행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부정적 중독을 나타내는 선택으로 포기, 증상, 중독 등 세 가지가 있다[5]. 즉, 중독과 관련해서는 현실에서의 미충족 욕구로 인한 인간의 부적응을 부정적 중독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기본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연약한 사람들은 부정적 중독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6, 7].

선택이론은 사람들은 외부 자극에 의해 행동한다는 자극-반응이론과는 반대로, 내적인 개인동기에 의해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행동하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즐거운 것과 고통스러운 것, 효율적인 것과 비효율적인 것, 과음하고 그렇지 않는 것 등 모든 행동들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내면작용에 의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다[8, 9]. 인간은 상황에 따라 끌려가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으로 우울이나 공격성 때때로 비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것을 찾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이다[10, 11]. 이에 본 연구는 선택이론에 근거하여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로 인해 나타나는 주의집중, 공격성, 우울 등의 정서문제와 현대전화의존이 청소년에게 있어서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인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2 정서문제, 현대전화의존,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

정서문제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의집중, 공격성, 우울, 신체증상 등이 학교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13].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주의집중 문제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우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14]. 성별로 남자는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영역에 있어 공격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고, 여자는 공격성이 학교생활적응의 소속감과 친구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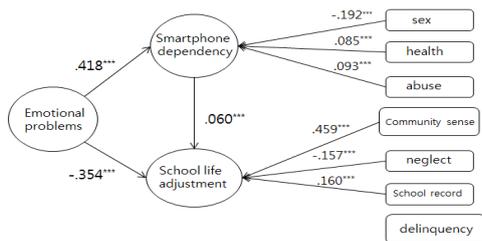
정서문제와 현대전화의존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공격성, 우울 등이 스마트폰 중독에

<Table 1> Model Fitness

	X ²	p	df	TLI	CFI	RMSEA
model1	1636.8	.000	214	.884	.910	.057
model2	1631.6	.000	213	.884	.910	.057

*** p <.001

Table 1은 그림 1에 제시된 model 1과 model 2의 적합도 지수인 RMSEA 값이 .057로 양호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model 1과 model 2의 카이제곱 값 차이를 살펴본 결과 5.145로 자유도의 차이 값 1에 대한 카이제곱 차이의 임계치인 3.84보다 크므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소 복잡한 모형일지라도 model 2가 model 1보다 자료의 속성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model 2를 선택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model 2에 대한 경로계수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도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서문제, 휴대전화의존, 성적, 공동체의식, 방임경험이었고,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서문제, 성, 건강, 학대경험으로 차이를 보였다. 표준화 계수를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공동체의식이 .45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서문제가 -.354, 성적이 .160, 방임이 -.157 순이었다. 휴대전화의존의 영향력은 .060로 가장 낮았다. 즉,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정서가 안정적인수록, 자신의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방임경험이 적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영향력을 크기를 비교하면, 정서문제가 .418로 가장 높아 정서적으로 안정된 학생일수록 휴대전화의존 수준이 낮고,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차이가 -.192로 여학생의 휴대전화의존 정도가 남학생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서문제와 공동체의식 등을 통제할 경우 일탈 및 비행경험이 학교생활적응과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Fig. 2] Perfect mediating model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서문제와 관련하여 선택이론을 바탕으로 휴대전화의존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이 정서문제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정서문제는 휴대전화의존과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부적응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선택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이다. 또한,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은 그 영향력의 크기가 크지 않으나,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문제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은 청소년이 지니는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적응적 행동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부적응 행동에 초점을 두어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처벌보다는 청소년의 우울이나 주의집중, 공격성과 같은 정서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적절한 전문 인력 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많은 중·고등학교에 상담교사가 거의 한명이고 대부분이 계약, 비정규직이다. 효과적 상담을 위해 상담교사 수를 늘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상담현장의 책임성,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휴대전화의존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문제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정서적 어려움은 휴대전화 의존을 높이고, 휴대전화 의존은 학교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부모양육태도, 또래 애착, 휴대전화의존을 투입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본 장석진 외(2011)의 연구에서 휴대전화의존이 학교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32].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청소년들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도구이다. 적절한 사용은 다양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공통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물리적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도구이다. 그러나 잘못 사용되면 가상공간에 갇혀 대인관계에 장애를 초래하고, 학교생활에도 지장을 준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를 등교시 보관하였다가 하교시 돌려주는

관리방식 보다 적절한 휴대전화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휴대전화를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태균(2012)과 오미섭(201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33, 34]. 입시위주의 교육과 경쟁적 교육환경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이 범정부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화와 인종, 종교와 사상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의식은 사회통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양이다. 따라서 현재 대학진학을 위한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존중과 배려와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소양과 인성을 갖추어 있도록 교육과정의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선택이론에 근거해 청소년의 정서문제가 학교생활적응과 휴대전화의존의 중요한 원인변수임을 검증한 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공동체 의식의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실천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REFERENCES

[1] S, E, Kim, H, R, Jo, C, R, No & H. J, Shin, Youth Welfare, Yangseowon, 2011.
 [2] H, S, Jwa,.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factors of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9, No. 6, pp. 1-28, 2012.
 [3] I, J, Kim, Reality therapy and Choice theory, Korea Counseling Center, 2012.
 [4] K, M, Yang,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on Smartphone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1, pp. 113-123, 2016.
 [5] D, H, Kim, "Examining Internet Addiction and Its Related Variables Based on Choice Theory Perspectiv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2010.

[6] D, H, Kin, S, G, Nam & S, M, Lee, "Examining Internet Addiction and Its Related Variables Based on Choice Theory Perspectives",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 23, No. 1, pp. 63-75, 2011.
 [7] Glasser, W, Positive addiction. Harper & Row, 1976.
 [8] I, J, Kim, Control Theory: A New Explanation of How We Control Our Lives, Korea Counseling Center, 2013.
 [9] Glasser, W, Control theory, Harper & Row, 1984.
 [10] D, H, Kim & M, S, Oh, "An Exploratory Study on Risk Factors of Addictive Mobile Phone Use: a focus on the Choice theory", The Second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conference source book, pp. 312-329, 2012.
 [11] Glasser, W, The Choice theory: A new psychology of personal freedom. Harper Collins, 1998.
 [12] G, O, Lee & M, R, Lee, "Effects of Personal, Family, and School Variables on School Adjustment among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School Students", The Second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conference source book, pp. 81-96, 2012.
 [13] J, H, Kum, C, H, Son, S, E, Che & S, G, Knag,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adjustment, and the Relation with Family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pp. 119-144, 2013.
 [14] J, M, Kim & S, J, Song, "The moder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ention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 levels in middle school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5, No. 1, pp. 5-27, 2014.
 [15] J, H, Kang,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a function of child sex",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wha University, 2004.
 [16] S, I, Whang, "Study on ecological factors affecting adolescent smart phone addi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2013.
 [17] M, J, Kwak & H, S, Lee, "The Characteristics of Trend and Addictive Inclination in Mobile Phone Us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13, No. 1, pp. 183-205, 2009.
 [18] H, G, Lee, "Exploration the Predicting Variables

- Affecting the Addictive Mobile Phone Use”,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22, No. 1, pp. 133-165, 2008.
- [19] D, Y, Kim & H, J, Yang, “The effects of ecological factors on the trajectory of cellular phone dependency during the middle school year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5, No. 3, pp. 169-197, 2014.
- [20] S, Y, Kim, “Estimating adolescent’s changes in mobile phone dependence : Testing for the effects of ecological factors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changes”. The Third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conference source book, pp. 893-907, 2013.
- [21] H, S, Kim & M, J, Suh, “The Difference of Ecological Factors According to Cell Phone Dependency and Use Purpose in Cell Phone Users among Children”,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20, No. 2, pp. 271-294, 2012.
- [22] H, J, Kang, “The relationships among smartphone use, mental health and physical health - Focusing on smartphone users’ attitud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3, pp. 483-488, 2016.
- [23] H, G, Baek & J, W, Yun,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smartphone addiction and psychological mindedne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7, pp. 389-400, 2014.
- [24] Y, S, Sung, “Mobile Phone Dependency and Social Delinquency among Korean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7, No. 2, pp. 291-321, 2006.
- [25] J, S, Lee & S, Y, Myeong, “A Study of Adolescents’ Peer Relation and School Life Mal Adjustment According to Their Mobile Phone use and Addic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5, No. 4, pp. 67-86, 2007.
- [26] J, H, Joo, “Exploring relationships among Korea Children’s Depression, Smarthpone Addiction,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Partial Least Square(PLS) Path Modeling”,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12, pp. 49-60, 2013.
- [27] G, S, Kim & E, M, Kim, “Effect of Emotional problem of the Youth on School Life Adaptation”, Studies on the Correction Welfare, Vol. 38, pp. 33-57, 2015.
- [28] B, S, Min, “A Study on the effect affecting Academic Performance of School Life Adjustment and Self Concep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Graduate School, 1991.
- [29] G, H, Lim & B, H, Cho, “The Prevalence of ADHD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17, No. 1, pp. 235-260, 2004.
- [30] G, I, Kim, J, H, Kim & H, T, Won, “Symptom Checklist-90-Revision in Psychiatric Outpatients”, Mental Health Research, Vol. 1, pp. 150-168, 1983.
- [31] S, H, Lee, H, S, Kim & E, Y, Na,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mobile phone use of youth”, Seoul: Samsung Life Public Welfare Foundation Social Mental Health Research, 2002.
- [32] S, J, Chang, S, W, Song & M, A, Joe, “The Effects of Mobile Phone Dependency,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ttachment to Peer on School Life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12, pp. 431-451, 2011.
- [33] T, G, Kim, “The Effect of youth activities on adaptation in school life - Mediating Effects of a Sense of Community”, The Second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conference source book, pp. 115-127, 2012.
- [34] M, S, Oh, “A Study on Convergence School Adjustment and Parameter Validation of the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1, pp. 183-188, 2016.

저자소개

박인아(In-A Park)

[정회원]



- 2004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08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가족복지, 인권